

滄菴 朴魯重의 생애와 學脈

- 19~20세기 초반 淸州儒林의 동향에 대한 試論 -

李錫麟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滄菴 朴魯重의 가계와 생애
 - 1. 順天朴氏의 가계와 향촌 활동
 - 2. 朴魯重의 생애와 활동
- III. 滄菴 朴魯重의 學脈과 교유 관계
 - 1. 朴魯重의 학문 수학과 學脈
 - 2. 19~20세기 초반 淸州儒林의 동향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滄菴 朴魯重의 생애와 학맥에 대한 규명을 통해 그동안 학계의 공백으로 남아있던 19세기 이후 청주지역 湖西儒林의 학맥과 동향을 이해하기 위한 그 시론적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다. 청주의 順天朴氏 가문은 조선시기 중앙정계의 큰 변동과 국가적 전란에 직면하여 그때마다 이 지역에서 일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한 가문 중의 하나였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박로중은 단종복위운동을 주도하였던 朴仲林·朴引年의 후손인 동시에, 임란 때 趙憲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한 朴春茂·朴春蕃의 후손이기도 하다. 그의 선계 중에서 春茂-東命-弘遠으로 이어지는 가계는 임진왜란 때부터 이괄의 난,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3대가 계속 창의함으로써 이 지역 사회에서 위상이 높았고, 그의 6대조인 朴敏雄은 영조대 '戊申亂' 때 그의 가문 사람들과 함께 倡義하여 반대 세력들을 진압함으로써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의 가문은 19세기 이후에도 청주지역을 대표하는 儒林 중의 하나였다. 그의 부친 小近齋 朴翼東, 滄菴 朴魯重, 그리고 아들 誠堂 朴象圭 3대로 이어지는 그의 가계는 학문과 덕망이 뛰어나, 당시 이 일대의 儒林 사회에서 명망이 높았다.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학맥을 분석한다면, 이 시기 청주지역 유림들의 학맥과 동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19세기 이후 청주지역 儒林의 學脈과 동향에 대해 연구한 글은 전혀 없다. 따라

서 이 글은 이 시기 청주지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측면의 하나로써 박로중을 중심으로 당시 유림 사회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그의 선대인 順天朴氏의 입향·정착 과정과 성장 및 청주지역에서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박로중의 생애와 활동을 검토 한 후 그의 학맥과 19세기 이후 淸州儒林의 동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滄菴 朴魯重의 가계와 생애

1. 順天朴氏의 가계와 향촌 활동

박로중(1863~1945)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본관은 順天이다. 그의 휘는 魯重이고, 字는 聖威, 호는 滄菴이며, 그의 호는 朱·宋 兩夫子의 滄洲의 滄字와 晦菴·尤菴의 菴字를 취한 것이다. 늦은 나이에 良齋 田愚의 제자가 되어 전우가 ‘莘隱經室’ 네 글자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가 살던 지명 청주 莘里 때문에 붙인 것이며, 이 때문에 그의 문하인들이 그를 ‘莘隱선생’ 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창암 박로중의 생애와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先代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선대에는 어떠한 인물들이 있고 그 활동은 어떠했으며, 언제 청주지역에 入鄕하여 이 지역의 주요 유력가문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순천박씨의 시조는 고려 개국공신 朴英規인데, 이후의 가계는 명확하지 않다. 中興祖인 朴蘭鳳의 묘소는 순천 관아 뒤편에 있다고 하며, 실제 이 가문의 계통은 中始祖인 朴淑貞부터 시작된다.¹⁾ 朴淑貞은 고려말에 보문각 직제학을 지냈고, 益齋 李齊賢, 謹齋 安軸, 稼亭 李穀 등과 가까운 사이로 풍류를 알고 학문이 뛰어났다.²⁾

그의 다섯 아들 중 첫째 朴元龍계는 후에 단종복위운동 등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손자 可興이 우의정, 증손자 錫命이 예문제학, 去踈가 지돈녕부사, 去踈의 손자 元宗이 中宗 反正으로 1등 공신이 되어 영의정에까지 오르게 된다. 박숙정의 다섯째 아들 朴元象은 工曹 典書を 지냈고,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공주 儒城縣 大捌里(懷德)에 낙향하였다고 하며³⁾,

1) 순천박씨의 가계는 世譜를 주로 참고하였다. 下福台派門中, 1985, 『順天朴氏下福台派世譜』 下.

2) 그는 關東存撫使에 있을 때 고성 三日湖에 四仙亭, 강릉 경포대에 鏡湖亭, 울진에 翠雲樓를 세웠고, 이제현과 안축 등이 창건기를 지었다(최완수, 1998, 「취금헌 박팽년」 『조선왕조충의열전』, 돌베개).

3) 박원상의 墓表는 현종 6년(1665)에 우암 宋時烈이 지었고, 동춘당 宋浚吉이 썼다(宋時烈, 『宋子大全』 권193, 高麗典書朴公墓表 ; 下福台派門中, 1985, 『順天朴氏下福台派世譜』 上, 高麗工曹典書朴公諱元象墓表陰記 및 朝鮮順天朴氏承仕郎公三世墓碣銘 并序). 이 때문에 그의 증손자 박평년은 회덕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正祖實錄』 권24, 正祖 11년 7월 壬午 및 『燃藜室記述』 권4, 단종조 고사본말).

그 셋째 아들 朴安生은 조선에 와서 義寧庫使로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안생의 둘째 아들 朴仲林(1400~1456)은 문과에 급제한 후 집현전 수찬 때 세자(후, 문종)의 사부가 되었고, 예문관대제학·집현전제학을 거쳐 이조판서에까지 올랐다. 이때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으로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정부의 요직을 장악한 후 端宗을 상왕으로 올리고 보위를 차지하였다.⁴⁾ 그러나 박중립과 그의 아들인 박팽년·박인년, 문하생인 성삼문·하위지 등은 오랫동안의 집현전 연구를 통해 체득한 유교적 명분론에 철저하였기 때문에 世祖의 왕위찬탈을 용납할 수 없었다.⁵⁾

이에 이들은 단종복위운동을 도모하였으나 중간에 발각되어, 중립을 비롯하여 장남 彭年과 차남 引年 등 다섯 아들과 손자 등 박원상계 인사 10여 명이 연루되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중립의 직계 가문은 엄청난 쇠락을 겪게 되었다.⁶⁾ 그러나 인년의 손자 朴原卿은 의로운 奴僕의 등에 얹혀 珍島로 도망하여 간신히 후사를 이을 수 있었다고 한다.⁷⁾

이렇듯 순천박씨 가문은 단종복위운동을 주도하다가 거의 멸문지화에 이르렀으나, 박원상계는 朴仁龍대에 이르러 죄에서 사면되어 관직에 나아가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룡은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빈한하게 생활하였지만, 첫째 아들 朴宜形은 광주목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 가문이 호남에서 청주지역에 자리를 잡은 것은 후에 임란 때 趙憲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한 朴春茂의 증조부이자, 창암 박로중의 13대조인 朴宜倫대부터이다. 朴宜倫이 그의 형 宜形과 함께 청주 外北洞 松谷(松創·松柯谷)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청주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⁸⁾ 朴宜倫이 이 지역에 들어온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마을이나 인근에 정착해 있던 어떤 가문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 시기는 대략 15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그의 부인은 南陽洪氏이고, 둘째 아들 坤孫이 淸州韓氏와 혼인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두 가문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⁹⁾

4) 세조의 왕위찬탈 과정에 대해서는 최승희의 글이 크게 참고된다(최승희, 1997, 「세조대 왕위의 취약성과 왕권강화책」 『조선시대사학보』 1).

5) 특히 박팽년은 과거에 급제한 다음해 집현전 정자에 제수된 후 단종 즉위년 부제학에 오르기까지 18년 동안 집현전 學士로 활동하였다.

6) 김경수, 1999, 「朴彭年の 생애와 현실 의식」 『조선시대사학보』 35, 34~37쪽.

7) 下福台派門中, 1985, 『順天朴氏下福台派世譜』 上, 朝鮮順天朴氏承仕郎公三世墓碣銘 并序 「男諱原卿方幼而禍 義僕竊負入珍島海中 得全血嗣」.

8) 『順天朴氏下福台派世譜』 上, 朝鮮順天朴氏承仕郎公三世墓碣銘 并序 「男諱仁龍 始蒙有 除典農寺副正 於承仕郎公考也 承仕郎公 與伯氏光州牧使諱宜形 自湖南移奠茲土 谷名曰松創」. 이 때문에 宜倫과 그 아들 坤孫, 손자 箕精, 증손자 春英의 묘소가 松谷에 위치하게 되며, 함께 입향한 伯氏 宜形은 부모산 아래 東土洞에 묘소가 위치하게 된다.

9) 이와 비슷한 시기 慶州金氏가 外北洞 松谷에 자리잡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宜倫의 손자 箕精의 셋째 부인이 경주김씨인데, 이것은 손자대의 일이므로 의륜의 입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가문에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후에 春蕃은 경주김씨 金安鼎을 들

이 가문은 朴宜倫이 외북동 松谷에 입향한 이후 이 향리에 정착하여 그 후손들이 계속 이곳을 중심으로 인근에 자리잡게 되었다.¹⁰⁾ 그리고 이 지역에 세거하고 있던 유력 가문들과 통혼을 통해 점차 세력을 넓히면서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륜은 南陽洪氏와 혼인하였고, 그 아들 坤孫은 淸州韓氏와 혼인하였는데, 韓孟誠의 딸로 예조판서를 지낸 韓立의 증손녀이다. 특히 청주한씨는 고려 때부터 이 지역에서 유력한 가문으로 자리잡았고, 조선에 와서 여러 명의 왕비를 배출할 정도로 세력이 강했다.

또한 坤孫의 아들 朴箕精(1480~1557)은 龍仁李氏·全義李氏·慶州金氏 등 3명과 혼인하였다. 용인이씨는 부친이 李克儉이고,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李伯持의 증손녀이다. 이렇게 순천박씨는 이 지역의 여러 유력 가문들과 통혼관계를 맺으면서 점차 청주지역 사회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朴箕精은 1507년에 司馬試에 입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힘써 경학에 정통함으로써 淸州 敎授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또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과 함께 가깝게 교류하였다고 한다. 그의 가문은 기정이 청주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적 활동을 전개하면서 사회적 명망이 상승하게 되었고, 또한 유력 가문과 계속 혼인하면서 이 지역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¹¹⁾

이 가문은 기정대에 이어 그 아들대에 오면서 정치·사회적으로 더욱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기정의 첫째 아들 春英은 명종 3년(1548)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장령, 회인현감 등을 역임하였고, 성제원과 교류할 정도로 학문적·사회적 명망을 얻었다. 둘째 春華도 사마시에 입격하였고, 셋째 春翥은 壽職으로 동지중추부사를 제수받았다. 넷째 春茂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창의하여 조현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고 근왕하였으며, 그 동생 春蕃 역시 형과 함께 종군하여 호조판서에 추증되었다.

특히 이 순천박씨 가문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청주지역 사회에서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된 중요한 계기는 국가적인 전란과 국내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 때 세차레나 큰 공로를 세우면서 부터이다. 그 첫 번째 계기는 이 가문이 중심이 되어 임진왜란 때 義兵을 일으켜 淸州城을 수복한 일이고, 다음은 인조대 李适의 난을 진압하고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공을

짜 사위로 맞이하게 된다.

10) 이곳 松谷에는 입향조인 朴宜倫과 그 아들 朴坤孫, 손자 朴箕精, 증손자 朴春英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다.

11) 박기정의 墓誌銘은 명종대 遺逸이었던 東洲 成悌元(1506~1559)이 찬하였다. 회인현감을 지낸 그의 맏아들 朴春英이 보은현감 성제원과 교류 관계(知己)가 있어 이루어진 것이다 (『順天朴氏下福台派世譜』上, 「懷仁以悌元爲知己 俾記顛末 不敢辭而爲之銘」 및 成悌元, 『東洲先生逸稿』稿 上, 通訓大夫淸州敎授朴公墓誌銘). 이들의 선대인 박팽년과 성삼문이 함께 단종복위운동을 도모하였던 것 때문에 더욱 교류가 활발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성제원은 묘지명에서 그 부인으로 金永珍의 딸 경주김씨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마지막의 3配였고 이때까지 생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5남 3녀를 두었다고 기록하였는데, 순천박씨세보에는 7남 3녀를 두어 自東·龍頤가 더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세운 일이다. 그리고 영조대 ‘戊申亂’ 때 이 가문을 중심으로 군대를 모아 李麟佐·申天永 등의 정변군을 진압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국가적 사건인 동시에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종복위 운동으로 위촉되었던 이 가문이 이 지역사회에 입향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또는 유력한 가문의 하나로서 그 위치를 확고하게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먼저 花遷堂 朴春茂는 둘째 아들 東命, 동생인 春蕃, 형 春蓊의 아들 錫命 등과 함께 임란 때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조헌과 함께 土亭 李之菡(1517~1578)의 문인¹²⁾으로서 임진왜란이 일어나 관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청주성이 함락되자, 7월초 창의하여 의병을 모아 趙憲, 승려 靈圭와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고 이어 鎭川으로 진군하여 왜적을 막았다.¹³⁾ 이 과정에서 그의 가문은 春蕃과 東命이 선봉을 맡고¹⁴⁾ 錫命이 조방장을 맡는 등 주로 가문적 기반 위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종사관은 경주이씨 李時發(1569~1626)과 청주한씨 韓赫이었다.

이때 이 가문이 중심이 되어 의병을 倡義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順川朴氏가 어느 정도 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기정을 통한 학연적 배경 역시 창의를 중요한 배경의 하나로 작용하였음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더구나 이렇게 국난에 직면하여 온 가문이 뜻을 모아 왜적을 물리침으로써 그만큼 가문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박춘무는 물론 그 아들대 여러 명이 관직에 제수되거나 후에 추증되게 된다.

즉 춘무의 장남 新命은 宣傳官, 둘째 東命은 泰安郡守를 지냈고, 춘웅의 장남 錫命은 安州牧使를 지냈다고 한다. 춘번의 장남 順命은 副司果, 세째 三命은 음사로 監察을 역임하였고, 춘번은 호조판서, 네째 定命은 동지중추부사에 추증되었으며, 또 정명의 아들 元震은 무과에 급제하여 창원부사 등 7읍을 다스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박춘무는 정유재란 때에도 공로를 세워 林川郡守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는데,¹⁵⁾ 후에 고향에 돌아와 講學과 교육활동에 종사하

12) 朴春茂, 『花遷堂集』 권2, 行狀 「及長 受業於土亭李先生門下 ... 而久留門下 則以離親爲憂 與先生舍于清州山東花川 因號花遷堂 陪親從師 誠以養志」 및 권3, 東史文獻錄 土亭李先生門人.

13) 이석린·전호수, 2000, 「花遷堂 朴春茂의 임진왜란 의병활동」 『중원문화논총』 4,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14) 朴春茂, 『花遷堂集』 권2, 諡狀 「以子東命及弟春蕃爲前鋒」.

15) 박춘무는 임란 때 청주성을 탈환하는 등 뚜렷한 전공을 세워 조헌과 함께 호서의병의 좌·우대장으로 추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주지역 사회에서 그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첫째 그가 전란에 큰 공로를 세웠으나, ‘7백 義士’와 함께 鎭山전투에서 전사한 趙憲 등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많은 의병장들과 달리, 전사하여 ‘殉國’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 크게 평가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더구나 청주성 전투 이후 조헌이 호남을 수호하기 위해 금산전투에서 순국한 것과 달리, 그는 北上하여 勤王함으로써 조헌의 행적과 더욱 비교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鍼術’에 뛰어나 수령에

였다고 한다.

이 가문은 다시 仁祖代에 들어오면서 또 한번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우게 되었다. 박춘무의 둘째 아들 朴東命(1575~1636)은 18세의 나이로 부친을 따라 청주성 전투에 공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후에 무과에 급제하여 宣傳官으로 선조를 侍衛하기도 하였고, 李适의 난 때에는 병석에 있어 아들 朴弘遠에게 난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62세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가 광주 무계 전투에서 순절하였다.¹⁶⁾

그의 맏아들 朴弘遠(1605~1669) 역시 18세의 나이에 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병석의 부친을 대신하여 張晩의 토벌군에 합류하여 길마재(鞍峴) 전투에서 난을 진압하였다. 이때 춘번의 손자인 朴弘震(1600~1643)도 함께 참여하였다. 그는 인조를 알현하지 않고 귀향하여 포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인조 9년(1631) 振武原從功臣 1등으로 宣務郎에 제수되었다. 순천박씨 박춘무계의 春茂-東命-弘遠으로 이어지는 가계는 임진왜란부터 이괄의 난,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3대가 계속 창의함으로써 가문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¹⁷⁾

그리고 박춘번계는 손자 弘震이 이괄의 난 때 창의하였고, 元震은 무과에 급제하였다. 이 가문은 춘번의 고손자이면서 朴魯重의 6대조인 朴敏雄·朴敏俊·朴敏彦 형제대에 와서 다시 한번 나라에 큰 공을 세우게 되어 이 지역 사회에서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즉 영조 4년(1728)에는 鄭希亮·李麟佐 등 소론과 남인은 '戊申亂'을 일으켜 英祖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密豐君을 추대하려고 하였다.¹⁸⁾ 이때 李麟佐·申天永 등이 이끄는 세력들은 淸安을 거쳐 수륜재를 지나 청주성을 점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청병마절도사 李鳳祥과 中營將 南延年, 裨將 洪霖 등이 전사하였다.¹⁹⁾

이에 박민용은 永憂堂 朴之埜와 함께 그 아들 新祐, 동생 敏俊·敏彦과 민준의 아들 新和 등 11명의 '義將'을 거느리고 창의하였다. 이 가문은 청주의 다른 가문의 사람들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한 후 上黨山城에 반대 세력을 포위한 후 이를 물리쳤다.²⁰⁾ 그는 청주를 수복하

임용되기도 하였는데, 17세기 이후 성리학 사회가 확립되면서 이후 醫術은 中人 신분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졌고, 이러한 신분적 관념에 따라 이 지역 양반사회에서 그의 행적과 공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16) 효종 3년(1652)에 선무원종공신 2등에 봉해지고, 숙종 34년(1708)에 旌閭가 세워졌으며, 고종 35년(1899)에 '忠景'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17) 이석린, 2003, 「壬亂期 順川 朴氏 三代 倡義 研究」 『중원문화논총』 7,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18) 오갑균, 1977, 「영조조 무신란에 관한 고찰」 『역사교육』 21 ; 정만조, 1983, 「영조대 초반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활동」 『진단학보』 56 ; 이종범, 1985, 「1728년 무신란의 성격」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 이상주, 2000, 「討逆日記에 대한 고찰」 『괴향문화』 8.

19) 청주고인쇄박물관, 1993, 『表忠祠志』. 이 책은 영조 49년(1773)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洪啓禧가 서문을 지었고, 三忠傳은 金元行이, 발문은 黃晷이 각각 지었다.

20) 이러한 내용은 6대손 朴魯重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朴敏雄의 문집인 『湖西散人實紀』에 자세히 적혀있다. 그의 행장은 홍문관 대제학 徐有隣, 묘지명은 5위도총관 李敏輔, 신도비명은 宋仁憲이 각각 찬하였으며, 서문은 박로중의 동문 친구인 宋毅燮이 지었다.

여 ‘倡義使’에 제수되어 揚武1등 공신에 책봉되어 江界府使를 역임하였고, 후에 정려가 세워지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그 후 손자 弼緒가 무과에 급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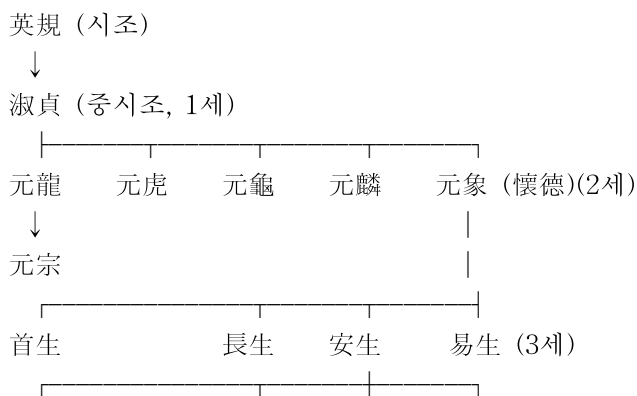
박로중의 5세조인 朴新祐는 부친 敏雄을 모시고 종군하여 공을 세워 호조참판에 추증되었고, 고조인 朴興緒는 정조대에 강계공 박민웅의 사손으로 錄用되어 宜陵直長을 거쳐 同敦寧에 올랐다. 증조인 朴璋鉉은 통덕랑이고, 조부 朴海洪은 문행이 있었으나 요절하였다.²¹⁾

박로중의 부친 朴翼東(1827~1895)은 字가 元順이고 호가 小近齋인데, 이 호는 『小學』과 『近思錄』을 독실하게 신봉하여 여기에서 취한 것이다.²²⁾ 그는 海厚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伯父인 海洪에게 양자로 입양되었고, 낳아 준 어머니는 寶城吳氏이다. 그는 族兄인 退省堂 朴元東에게 학문을 배워 문학과 덕행이 있어 지역에서 추앙을 받았다. 박원동은 剛齋 宋穉圭(1759~1838)의 高足이었으므로 그는 학문은 湖學과 연원이 이어진다고 하겠다.

그는 壺山 朴文鎬(1846~1918)의 스승으로 懷仁 秋谷에서 강의 蓮堤里로 이거한 晤堂 李象秀(1820~1882) 등과 교류하였다. 그는 아들 魯淵·魯一·魯重 3형제를 비롯하여 인근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였다.²³⁾ 그는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부인은 全州李氏로 秘書院丞에 추증된 世泰의 따님이고 종실 敬寧君의 후손이며, 공보다 17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3남 1녀를 두었고 사위는 문하생이기도 한 韓忠鉉이다.²⁴⁾

이러한 청주 순천박씨 가문 중에서 복대동과를 중심으로 한 가계도를 작성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청주 순천박씨의 가계도



21) 『順天朴氏下福台派世譜』上.

22) 朴翼東, 『小近齋集』 권2, 附錄 行狀 「篤信小學書 尊尙近思錄 以小近 扁其齋」 및 墓碣銘 「齋小近 以晚年志道 尤在小學近思二書云」.

23) 朴翼東, 『小近齋集』 권2, 附錄 門人錄. 門人錄에 따르면 그의 문인은 110여 명 정도가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문인들은 당시 청주 인근 많은 가문의 자제들을 망라하고 있어, 小近齋의 학문적 위상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그의 행장은 응교 三泉 洪承運, 묘갈명은 石農 吳震泳이 찬하였고, 문집의 서문은 宋毅燮이 지었다.

24) 朴翼東, 『小近齋集』 권2, 附錄 行狀·墓碣銘.

2. 朴魯重의 생애와 활동

1) 朴魯重의 생애

朴魯重은 철종 14년(1863) 3월 21일 청주 서편 福臺里 獨山 鄉第에서 부친 朴翼東(1827~1895)과 모친 全州李氏 사이에서 3남으로 태어났다.²⁵⁾ 그의 字는 聖威, 호는 滄菴이며, 선대의 당색은 서인(老論)이었다. 그가 태어나던 날 밤 소근재 박익동이 虎馬가 집에 이르는 상스러운 꿈을 꾸어 어릴 때에는 ‘虎駿’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가 4세 때 어머니가 千字文을 말로 알려주면 듣고 문득 音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였고, 6세에는 五言詩를 지었다고 한다. 8세 때 그의 집은 獨山에서 莘城으로 이사하였는데, 그날 밤에 부친이 韻을 명하니 “月明山 위에 달이 또 밝다”라는 글귀를 지었고, 12세 때에는 인근 강의 蓮堤里에 살던 晤堂 李象秀(1820~1882)²⁶⁾가 그가 지은 ‘登高賦’를 보고 재주와 정서가 매우 뛰어나다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19세기에 오면 송시열의 둘째 손자인 宋疇錫계는 宋達洙(1808~1858)·宋近洙(1818~1902) 형제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家學을 주도하는 계파로 부상하였다. 송달수는 송치규의 전적제자가 되어 그를 이어 철종대 대표적인 호서산림이 되었고, 이로써 宋時烈 → 宋能相 → 宋煥箕 → 宋釋圭 → 宋達洙 → 宋秉璿으로 이어지는 가학의 전승 계보가 성립되었다.²⁷⁾

박로중은 어릴 때부터 부친 밑에서 학문을 오랫동안 수학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친은 송시열의 6대손인 剛齋 宋釋圭(1759~1838)의 문인인 族兄 退省堂 朴元東에게 학문을 수학하였다.²⁸⁾ 박로중은 이러한 부친에게 학문을 배움으로써 宋時烈·鄭澮 이후 宋釋圭로 이어지는 湖學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 박익동은 당시 莘社 → 獨山精舍 → 莘城社에 걸쳐 두차례 이사하면서 각각 청주지역 여러 가문의 자제들을 가르쳤다. 로중이 태어나 처음 살았던 곳에서 배운 문인으로는 로

25) 박로중의 생애는 그의 아들이자 문인인 象圭가 지은 家狀을 주로 참고하였다. 朴魯重, 『滄菴集』 권7, 附錄 先考滄菴處士府君家狀. 그의 문집의 서문과 묘갈명은 權純命이 지었다.

26) 晤堂 李象秀는 남당 한원진의 학맥을 이어받은 학자로서 懷仁 訥谷에 살던 壺山 朴文鎬(1846~1918)의 스승이기도 하다. 박문호는 20세 때부터 李象秀에게 나아가 성리학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배웠다고 한다. 이상수는 懷仁縣 秋谷에 살다가 1871년 강의 蓮堤里로 이거하였다.

27) 노관범, 1997, 「19세기 후반 湖西山林의 위상과 ‘正學’운동 - 淵齋 宋秉璿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38, 서울대 국사학과.

28) 朴翼東, 『小近齋集』 권2, 附錄 墓碣銘 「公年十二 承重祖妣喪 哀禮如成人 免喪受業族兄退省堂元東宋剛齋先生高足」. 朴元東은 하북대와 朴元震의 장남인 世逸의 6대손이고, 朴翼東은 차남인 世隱의 6대손이다.

중 형제를 비롯하여 52명이나 되었다.²⁹⁾ 박로중은 부친으로부터 한문의 기초를 닦고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배우기 시작하여, 14세에 이르러서는 사서를 읽고 통달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16세(1868)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 全州李氏의 상을 당하여 성인과 같이 예를 다하였고, 이질에 걸려 오래 앓으면서도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19세가 되자 牧隱李穡의 후손인 韓山李氏를 부인으로 맞아들였고³⁰⁾, 부친 소근재공의 명에 따라 4서 5경을 두루 읽고 백가를 섭렵하였다.

그는 20세(고종 20, 1883)에 雲樵 盧勉國에게 科體를 배워 과거 시험을 위한 공부와 함께 학문의 폭을 더욱 넓혔다. 노면국은 교하노씨로 청주에 살았던 학덕이 높은 인물이었다.³¹⁾ 박로중은 이미 사서를 통독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과거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이듬해 부친과 함께 속리산 화양동에 가서 華陽水石과 皇明日月을 바라보고 “가슴이 환희 트이고 눈이 상쾌하고 넓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는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 온 서인(노론) 학통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을 자신이 이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21세가 되던 해부터 2~3년 동안 부친이 학질과 疔患으로 고생하자, 그는 여러 의원들에게 묻고 약을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마침내 건강을 회복시켰고, 이때부터 약 10년 동안 士友들과 함께 부친 밑에서 더욱 열심히 강습하고 학업에 정진하였다.

이때 부친에게 함께 수학한 동문은 蕙裳 具熙, 九愚 趙性晉, 琅山 李喜冕, 甯菴 李桓珪 등 모두 이름있는 선비들이었다.³²⁾ 특히 三泉 洪承運은 淵泉 洪奭周(1774~1842)의 손자로서 문장과 예학이 당대에 뛰어났고, 求齋 洪觀植과 沁園 金華胄 등도 학문이 뛰어났다.

그는 30세가 되던 해(고종 30, 1893) 겨울에 本統禦營이 都試를 시행하자 여기에 응시하여 三製 모두 較榜에 들었으나 有司의 사사로운 불공평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다음 해 伯氏 魯淵이 갑자기 죽어 집안이 살아갈 앞길이 암담하자, 로중은 공부하던 책을 묶어 高閣에 던져두고 나무하고 밭을 가는 등 농사일에 힘써 아버이를 공양하였다고 한다.

이 해 5월 조정에서 특명이 내려와 8도의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청주에서도 명륜당에 선비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치루었다. 이때 그는 18명 안에 선발되어 詩와 表 雙榜에 장원하여 당일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이때 나라가 혼란하여 과거시험이 시행되지 않다가 가을에 비로소 覆試가 시행되었다. 3일 동안 三場에 걸쳐 13문제를 시험하여 합격하였다. 그는 공주 講學樓³³⁾에 머물던 중 갑오개혁의 실시로 과거제가 폐지되자 고향으

29) 朴翼東, 『小近齋集』 권2, 附錄 門人錄.

30) 『順天朴氏下福台派世譜』. 그녀의 묘지명은 李正珪가 지었다.

31) 박로중은 그 후에 스승이었던 盧勉國과 麻寺·松泉 등에서 만나 그 감회를 시로 읊기도 하였다(朴魯重, 『滄菴集』 권1, 詩 遇雲樵盧丈勉國).

32) 그의 문집에는 이들과 주고 받은 편지글이 실려 있다(朴魯重, 『滄菴集』 권3, 書 知舊).

33) 그는 공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연기 林炳喆의 집에 머물기도 하였다(朴魯重, 『滄菴集』 권

로 돌아와 과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894년 일본은 경복궁쿠데타를 감행하여 김홍집을 내세워 갑오개혁을 단행하였다. 1차 갑오개혁의 관료제도의 개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은 과거제도의 폐지였다. 7월 3일 군국기무처 회의에서 과거제를 폐지하고, 7월 12일에는 선거조례와 전고국관제를 제정하였다. 이 제도는 시험과목이 4서 5경과 같은 유교경전이 아닌 국문·한문·寫子·산술·內國政略·외국사정 등 정치행정과 실무, 그리고 국제정치 등의 과목으로 시험하여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었다.³⁴⁾

이 해에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사회적 모순이 폭발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東學農民戰爭이 일어났다. 이때 박로중은 농민군의 위세를 피하여 보은의 懷仁 산골에 들어가 잠시 몸을 숨기기도 하였다. 여기서 임란 때 선대인 박춘무와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였던 重峰 趙憲이 피난했던 봉오리들을 여러 날 동안 둘러보았고, 돌아오는 길에는 後栗祠의 遺墟址를 보고 몇달 후에 돌아왔다.³⁵⁾ 다음 해에는 백씨의 3년상이 겨우 끝났을 때 부친 소근재공이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었다. 이에 박로중은 그 애통함이 망극하여 예로써 삼년을 하루같이 성묘하였다고 한다.

이후에는 세속에 크게 뜻을 두지 않고 오직 독서와 농사에 힘써 ‘忠孝勤儉’ 4글자를 생활의 신조로 삼아 밤낮 쉬지 않고 실천하였다. 부인 韓山李氏 역시 어진 내조로 남편을 받들고 알뜰히 길쌈을 짜서 수년이 못되어 몇마지기의 좋은 땅을 마련할 정도로 살림이 불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그 후에도 계속 공부에 정진하여 더욱 학문의 깊이와 폭을 넓혀갔다.

그는 40세(1903)가 되면서 청주지역 유림들에게 그의 학문을 어느 정도 인정받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淸州 儒林의 중망으로 莘巷書院 有司에 추천되어 서원의 각종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³⁶⁾ 이 서원은 당시 청주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이 지역 공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³⁷⁾ 그는 원장과 의논하여 옛 폐단을 고쳐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였는데, 이로써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던 서원의 질서를 되찾고, 籩豆의 차서를 갖추어 儒風이 진작되고 文脉이 정돈되었다고 한다.

그가 47세(1910) 되던 8월에는 부인 韓山李氏(1864~1910)의 상을 당하였다. 그녀는 박로중보다 1년 늦게 태어나 35년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 해 이 달에 일본에 의해 나라가 망하

1, 詩 公州講學樓罷齋日到燕岐三岐里林炳喆家分韻).

34) 유영익, 1990, 『갑오경장 연구』, 일조각 ; 최덕수, 1994,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한국사』 11, 한길사.

35) 朴翼東, 『小近齋集』 권2, 附錄 遺事 ; 朴魯重, 『滄菴集』 권1, 詩 望重峯趙先生避亂峯有感 및 過後栗祠遺壇.

36) 朴魯重, 『滄菴集』 권1, 詩 癸卯七月任莘巷書院有司.

37) 청주 莘巷書院은 선조 3년(1570) 趙綱·李得胤·卞景壽 등에 의해 창건되어 현종 1년(1660)에 사액되었다. 제향 인물은 李珥·李穡·慶延·金淨·朴薰·宋麟壽·韓忠·宋象賢·李得胤 9명이다.

는 수모를 당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仲氏 朴魯一의 상까지 당하게 되어, 두 해 동안 연이어 나라와 집안에 슬픔이 이어졌다.

그는 문하에 배우러 오는 인근 가문의 자제들을 즐겁게 맞이하여 열심히 가르쳤고, 아들 鶴圭·龍圭·象圭 3형제를 비롯하여 가문의 자제들도 극진히 가르쳤다. 그는 1912년부터 1918년까지 焦千之(呂榮公의 스승)와 같은 훌륭한 선생을 맞이하여 아들을 가르쳤고, 呂伯恭과 같은 선생을 택해 가서 배우게 하였다.

또 주위에 곤궁하고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이 문하에서 배우고자 하면 도와주고 가르쳐 주었고, 동리와 이웃 사람 중에서 밥을 굶는 사람이 있으면 곡식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으며, 혹시 서로 다투어 관에 호소하려는 사람들이 먼저 선생에게 찾아와 물어오면 그 시비를 가려주어 송사가 없게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박로중은 어려서부터 부친 소근재공의 훈육을 받아 학문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장년의 나이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의 직임까지 맡는 위치로 성장하였다. 그는 집안을 일으키고 자제는 물론 인근 자제들을 교육하는 등 이 시기 가문은 물론 향리에서 비중있는 인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는 1943년 風症으로 자리에 누워 1945년 3월 7일 세상을 뜨니 만 82세였다. 청원 江內 鶴天에 안장하였고, 3남 3녀를 두어 아들은 鶴圭·龍圭·象圭이다. 鶴圭는 청주한씨와 사이에 2남 1녀를 두어 아들은 鍾晷·鍾五이고, 龍圭는 여흥민씨와 사이에 1남 4녀를 두어 아들은 鍾黃이며, 象圭는 함천이씨와 사이에서 6남을 두니 鍾六·鍾億·鍾參·鍾八·鍾心·鍾丁이다.

2) 宗中 활동과 先代의 역사 정리

박로중이 향촌 사회에서 한 활동 중에서 후학 양성 활동을 한 것 외에 주목되는 것은 문중의 여러 일들을 도맡아 정리한 것을 들 수 있다.³⁸⁾ 그는 점점 학문의 깊이가 더해가는 가운데 장년의 나이가 되면서 문중의 宗事를 직접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선대의 문집 간행과 역사를 정리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그의 나이 55세(1918) 때 어떤 門中 사람이 대전 돈이동에 있는 선조 典書公 元象의 묘소 아래에 있는 位土를 몰래 방매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즉시 달려가 宗人을 힐책하고 代金を 추심하였고, 돈을 이식하여 몇 년만에 새로운 전답을 還買하여 제향을 드렸으며, 사초하고 封築을 새로이 하는 동시에 宗契를 설치하여 종중 사람들의 화목을 도모하였다.

또 그는 단중복위운동에서 절의를 지키다가 순절한 閒碩堂 朴仲林과 景春軒 朴引年 양위의 위패를 東鶴寺 肅慕殿에 배향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박팽년의 부친과 아우로서 莊壇에

38) 그의 이러한 활동은 주로 家狀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朴魯重, 『滄菴集』 권7, 附錄 先考滄菴處士府君家狀.

배향하는 것이 도리상 마땅하였지만 꺾하였기 때문에, 이때 박로중이 士林과 의논하고 종종 사람들의 뜻을 모아 이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兩世의 위관과 梅竹堂의 부친 忠肅公 成勝의 위관을 만들어 西廡 6臣位 상하에 배향하고, 2천금을 獻誠하여 춘추 제향에 필요한 자본으로 삼게 하였다. 1919년에는 6대조 참판공 朴敏雄의 石儀를 金川 묘소에 건립하였고, 이듬 해 4월에는 10대조 판서공 朴春蕃의 墓床을 새로 세웠다.

이러한 박로중의 활동은 순천박씨 문중 사람들을 서로 단결시키고 화의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문중에서는 公司員 1명을 두어 宗事를 주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박로중은 부친 소근재공이 오랫동안 문중의 일을 공정하게 한 것을 이어받아 조금의 사심도 없이 바르게 하였고, 이로써 宗規가 지켜지고 族誼가 더욱 돈독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57세(1920)에 간재 전우의 제자가 되었고, 이듬해 가을에 다시 법문에 들어가 道를 講하고 수일 만에 돌아왔고, 그 이듬해 8월 보름에 열린 講會와 鄉約에도 참석하였다.³⁹⁾ 그는 스승의 사후에도 자주 계화도에 들어가 영전에 배례하였다고 한다. 1926년 봄 간재의 문집 간행 때에는 아들 상규를 보내 書役으로 2년 봄을 종사하게 하고 천금을 보내 문집 1질을 구입하여 아침 저녁으로 읽었다. 그는 주서절요와 심경, 근사록 등을 번역하여 배우는 樞要로 삼게 하였고, 항상 의관을 바르게 하고 島門에 들어간 후 즐기던 담배도 끊었다고 한다.

1927년에는 『송자대전』이 重刊되자 종중과 의논하여 5백금을 회사하여 출간을 도왔고, 년보 1질을 얻어 자손과 종족에게 읽게하고 詩로 낙성을 축하하였다. 그는 이때부터 십수년 동안 다른 가문의 詩와 狀, 碑碣을 찬하였다.

또한 그는 1929년 전후 십여 년 동안 선대의 각처 墓齋를 중수하고 宗財를 적립하여 경영하였으며, 매년 상량문과 중수기를 써서 송축하였다. 1931년에는 全義 蘇洞에 있는 선조 吏判公의 墓齋를 새로 중수하고 묘소를 사초하고 계를 만들었다.

1939년에는 松谷(외북동) 承仕郎公 朴宜倫 묘소에 있는 비와 상석이 퇴락하여 宗中の 의논을 모아 자금을 모아 개수하고 직접 碑銘을 찬하였고, 이듬해에는 宗議를 얻고 성금을 거두어 상조인 江南大君과 大匡公, 대제학공·문민공·교리공·진사공·직장공·전농부정공의 位榜을 松谷 齋廳에 모셨다. 이는 강남대군 이하 2위는 세대가 멀고, 문민공 이하 4세는 일문이 殉忠하였으나 묘소와 배위가 증거할 문헌이 없어 후손들이 제사를 올릴 곳이 없었기 때문에 壇을 설치하고 제향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박로중은 선조의 문집을 간행하는 일에도 열성적이었다. 1933년 그는 春溪 宋毅燮 등 여러 유림들과 함께 湖西散人公 朴敏雄을 表忠祠에 배향하고자 공론을 모으려고 통문을 돌리는 등 성의를 다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41년에 그의 신도비를 묘소에

39) 이때 계화도에서 읊은 시가 있다(朴魯重, 『滄菴集』 권2, 詩 八月十五日登繼華島萬丈峯觀海).

세웠으며, 고조고 직장공의 墓床도 같은 날에 세웠다. 박민웅의 忠義를 널리 알리고자 매번 사손 鍾述과 의논하고 지도하여, 몸소 상경하여 金東江에게 명문을 부탁하고, 전자는 宋仁憲, 글씨는 鄭雲鶴에게 받았다.

1936년에는 순천박씨 족보 편찬을 주도하여 손수 교정 책무를 맡는 등 한결같이 중중의 일에 적극적이고 일가를 돈독하게 하였으며, 또 부친 朴翼東의 문집인 『小近齋集』을 발간하여 문인과 죽인에게 돌려 幽明의 한이 없게 하였다. 이때 간재의 문인으로 친구인 吳震泳이 박로중의 부친 朴익동의 墓碣銘을 찬하였고, 宋毅燮이 『小近齋集』의 서문을 썼으며, 박로중과 夏圭가 발문을 지었다.

그리고 1943년에는 박민웅의 문집 『湖西散人實記』를 발간하였는데, 친구인 宋毅燮과 자신이 직접 서문을 짓기도 하였다. 그는 이외에도 40여 명에 이르는 선대들의 행적을 정리하여 묘표·행장·묘갈 등을 찬하기도 하였다.

Ⅲ. 滄菴 朴魯重의 學脈과 교유 관계

1. 朴魯重의 학문 수학과 學脈

창암 박로중의 학문이 싹을 내려 성장하고 한 일가를 이루게 된 과정에는 크게 네사람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어릴 때에는 어머니와 부친의 영향 아래에서 학문을 배우고 이를 향상시켰고, 본격적으로 과거 공부를 하면서 盧勉國에게 배웠으며, 후에는 艮齋 田愚의 문하에 들어가 그의 제자가 됨으로써 노론 학맥을 계승하게 되었다.

박로중에게 처음 글자를 가르쳐 준 사람은 어머니인 全州李氏였다. 박로중은 4세 때 어머니가 千字文을 말로 알려주면 듣고 문득音を 알고 기억하였다고 하며, 6세에는 五言詩를 지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총명하였다고 한다.

박로중의 학문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은 부친인 小近齋 朴翼東(1827~1895)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친 밑에서 오랫동안 학문을 수학하여 훗날 이 일대에서 뛰어난 학자 중의 한 명이 될 수 있었다. 그의 부친은 송시열의 6대손이면서 당시 호서사족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懷德 鰲村에 살던 剛齋 宋釋圭(1759~1838)의 문인인 族兄 退省堂 朴元東에게 학문을 배웠다.

19세기에 오면 송시열의 둘째 손자인 宋疇錫계는 宋達洙(1808~1858)·宋近洙(1818~1902) 형제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家學을 주도하는 계파로 부상하였다. 송달수는 송치규의 전적제자가 되어 그를 이어 철종대 대표적인 호서산림이 되었고, 이로써 宋時烈 ... 宋能相 → 宋煥箕 → 宋釋圭 → 宋達洙 → 宋秉璿으로 이어지는 가학의 전승 계보가 성립되었다.⁴⁰⁾

40) 노관범, 1997, 「19세기 후반 湖西山林의 위상과 ‘正學’운동 - 淵齋 宋秉璿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38, 서울대 국사학과.

박로중의 부친은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송치규의 문인인 朴元東에게 학문을 배웠고, 박로중은 역시 누대에 걸쳐 西人(老論) 세력에 속했던 가문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당연히 이러한 家學的 傳統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⁴¹⁾ 부친 박익동은 당시 莘社 → 獨山精舍 → 莘城社에 걸쳐 두차례 이사하면서 각각 청주지역 여러 가문의 자제들을 가르쳤다.

박로중이 태어나 처음 살았던 곳에서 동문수학한 인물로는 魯淵·魯一·魯重 3형제를 비롯하여 52명이나 되었고, 獨山精舍에서 배운 이는 12명이었으며, 莘城으로 이사한 후 그곳에서 배운 이는 46명으로 그는 모두 110명의 제자를 두었다.⁴²⁾ 이를 가문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小近齋 朴翼東의 문인

번호	가 문	인원(명)	번호	가 문	인원(명)
1	제주 高	6	16	보성 吳	2
2	경주 金	2	17	진주 柳	4
3	광산 金	3	18	진주 李	10
4	예안 金	1	19	천안 全	1
5	의성 金	1	20	양주 趙	2
6	馬	1	21	한양 趙	2
7	신창 孟	2	22	평양 趙	1
8	여흥 閔	1	23	창녕 曹	1
9	반남 朴	3	24	天	1
10	순천 朴	40	25	강화 崔	1
11	밀양 孫	1	26	전주 崔	2
12	은진 宋	2	27	청주 韓	7
13	달성 徐	2	28	풍산 洪	1
14	평산 申	7	29	黃	1
15	순흥 安	1	계		110

위의 표에서 보면 당시 청주와 인근에 거주하던 많은 가문의 자제들이 소근재에게 학문을 배웠음을 알 수 있다. 모두 29개 가문에서 110명이 그에게 학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중에

41) 그의 가문은 대체로 선대는 물론 후대에도 西人(老論)의 학맥을 이어 받았다. 朴春英계의 亨達은 寒岡 鄭述의 문인이고, 朴春蓊계의 希賢은 時庵 趙相愚의 문인이며, 朴春茂계의 思欽은 竹軒 尹屏溪의 문인이고, 昌漢은 陶庵 李天放의 문인이었다. 朴春蕃계의 世樑은 宋時烈的 문인이고, 敏迪은 晚翠軒 景寒堂의 문인이며, 敏學은 權尙夏의 문인이다. 그리고 相震은 宋時烈的 문인이며, 補天은 陶庵 李天放의 문인이었다(『順天朴氏下福台派世譜』 권1, 朝鮮順天朴氏承仕郎公三世墓碣銘 并序).

42) 朴翼東, 『小近齋集』 권2, 附錄 門人錄. 소근재는 고종 5년(1868) 7월 살던 獨山에 큰 폭우가 내려 개천이 범람하여 집과 廟主가 물에 잠기자, 고종 7년(1870) 봄에 독산에서 몇 리 떨어진 莘城에 집과 터를 구입하여 10여 칸의 堂宇를 마련하여 卜居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한다(朴翼東, 『小近齋集』 권1, 雜著 新城卜居記).

서도 순천박씨 가문의 자제가 아들 3형제를 비롯하여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의 부인인 全州李氏 가문의 자제가 10명, 소근재의 사위 집안인 淸州韓氏 7명, 平山申氏 7명, 濟州高氏 6명, 그리고 생모 집안인 寶城吳氏 2명 등이었다.

이들 가문들은 대개 西人(老論) 당색 가문이거나 先代부터 혼인을 통해 일정한 교류가 있었던 집안들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청주지역의 대표적 南人 가문이었던 高靈申氏와 安定羅氏 등의 자제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들 가문이 영조대 ‘무신란’ 때 정치적 입장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었듯이, 19세기까지도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집안과 통혼은 물론 학연적 관계를 맺는 것에 일정한 한계를 긋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박로중이 한문의 기초를 닦고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부친을 통해서였다. 그는 14세부터 사서를 읽고 통달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즉 그는 처음 태어난 집에서 부친으로부터 한학을 오랫동안 배워 학문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이때 같이 동문수학한 사람들과 ‘莘社事稷目’을 만들었는데, 朴斗壽·趙命熙·申麟善·趙泰錫·金達用·趙永達·申福熙·金順根·安有道·韓莊出·申秉均 등이 이들이다. 그리고 蕙裳 具熙, 九愚 趙性晉, 琅山 李喜冕, 甯菴 李桓珪 등과도 교류하면서 함께 공부하기도 하였다.⁴³⁾

그는 20세(고종20, 1883)에 雲樵 盧勉國⁴⁴⁾에게 科體를 배워 과거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였다. 노면국은 교하노씨로 청주 인근에 살았던 학덕이 높은 인물이었다.⁴⁵⁾ 박로중은 이미 사서를 통독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과거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였던 것이다.

또 그는 이듬해 부친과 함께 화양동에 가서 華陽水石과 皇明日月을 바라보고 “가슴이 환희 트이고 눈이 상쾌하고 넓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는 그는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 온 서인(노론) 학통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을 자신도 계속 계승하겠다는 다짐으로 생각한다.

그는 계속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여 중장년기에 접어들면서 청주지역 유림들로부터 학문의 수준을 인정받았다. 즉 40세(1903)에 청주지역 유림을 대표하는 莘巷書院의 有司가 되었다. 이 서원은 노론 세력을 대표하는 곳으로, 그로 인해 서원이 질서를 되찾고 籩豆의 차서를 갖추으로써 儒風을 진작시키고 文脉이 정돈되었다고 한다.

43) 이들은 부친 박익동과 ‘文會之交’ 사이였고(朴翼東, 『小近齋集』 권2, 附錄 遺事), 박로중과는 친구 사이이기도 하였다(朴魯重, 『滄菴集』 권3, 書 知舊).

44) 盧勉國은 부친 朴翼東의 ‘文會之交’ 중의 한 사람이었다(朴翼東, 『小近齋集』 권2, 附錄 遺事).

45) 현재 청원군 남일면 駕山里에는 교하노씨가 세운 棣華書院이 있다. 서애 유성룡이 盧繼元 등 4형제의 남대른 우애를 보고 선조에게 아뢰어 선조가 친히 ‘棣華堂’이라는 당호를 써주었는데, 그 후 棣華祠가 되었다가 임란 때 소실되었다. 숙종 27년(1701) 다시 서원을 세워 4형제를 배향하고, 영조 37년(1761) 盧德元을 추향하였다.

한편 박로중은 57세(1920)가 되던 해에 良齋 田愚(1841~1922)를 찾아 뵙고 그의 문인이 되었다.⁴⁶⁾ 그는 그해 가을 셋째 아들 象圭를 데리고 먼 바다를 건너 繼華島에 들어가 폐백하고 田愚의 학맥을 계승하게 되었다. 이듬해 가을에 다시 그의 법문에 들어가 道를 講하고 수일만에 돌아왔고, 또 다음해 8월 보름날의 講會와 鄉約에도 참석하였다.

그는 수년 동안 간재 전우의 手筆과 따스한 가르침을 받았고, 날마다 수십명의 동문과 함께 도를 강하고 학문을 논하였다. 매번 한달 이상 섬에 묵으면서 性理를 토론하고 敬義를 해석하였고, 공자·주자·송자 3선생의 位榜을 堂上에 써서 붙이고 聖經과 賢傳을 공부하고 향음주례 규약을 읽어 달마다 이를 상례로 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박로중은 宋時烈 → 鄭澮 → 金偉材 → 金正默 → 宋穉圭 → 朴元東 → 朴翼東 → 朴魯重으로 이어지는 湖學의 학맥을 계승하였고, 宋時烈 → 金昌協 → 李緯 → 金元行 → 朴胤源 → 洪直弼 → 任憲晦 → 田愚로 이어지는 老論 洛學의 학맥을 동시에 잇게 되었다고 하겠다.

즉 이것은 박로중이 선대 이래 서인(노론) 가문의 家學의 傳統을 잇고, 老論 洛學을 계승한 청주의 대표적 학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당시 청주 인근 지역에서 그와 함께 전우의 제자가 된 사람은 春溪 宋毅燮, 石農 吳震泳, 小心齋 黃鍾復, 鴻北 卞榮駿, 滄南 具鶴謨 등이었다고 한다.⁴⁷⁾

그런데 1922년 7월 4일에 간재 전우가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박로중은 문득 대들보가 부러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고, 자신이 젊었을 때 선생을 만나 학문을 배우지 못한 것을 후회스럽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다음 <표 3>에서 보듯이 그는 宋時烈 → 金昌協 → 李緯 → 金元行 → 朴胤源 → 洪直弼 → 任憲晦 → 田愚로 이어지는 老論 洛學의 학맥을 대표하는 종장을 잃은 슬픔과 스승을 늦게 뵈 아쉬운 마음으로, 暮年喪을 하고 禮月에 護喪하는 등 예를 다하고 돌아왔다.

이듬해 3월 그는 다시 계화도에 들어가 스승의 영전에 배례한 후 보름제에 참석하였다. 이때 전우 선생의 문집을 간행하는 일이 문하생들 사이에 결정되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石農 吳震泳 등과 경기전에 들러 태조 이성계의 영전을 보았고, 益山 玄洞에 가서 전우선생의 묘소에 참배하였다. 또 송의섭과 오진영을 영남으로 보내 문집 간행을 추진하였고, 連山 高井里에 들러 사계 金長生 선생의 묘소에 참배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는 1924년 4월에도 술을 마련하고 글을 지어 丹石 李宗魯와 함께 또다시 계화도에 들어가 선생의 靈几 앞에 예를 올리기도 하였다.

46) 박로중의 부친 朴翼東은 良齋 田愚가 文泉에 거주할 때 서로 交遊한 사이였다. 비록 전우가 박익동보다 나이가 적었지만 박익동은 禮에 대한 의문사항을 문의하기도 하였다(朴翼東, 『小近齋集』 권2, 附錄 遺事). 이러한 그의 부친과 전우의 교유 관계도 박로중이 전우의 문인이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47) 朴魯重, 『滄菴集』 권7, 附錄 先考滄菴處士府君家狀 및 권3, 書 師友同門. 그러나 간재 전우의 문집에 송의섭은 문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田愚, 『良齋集』, 觀善錄 忠淸道 淸州).

이처럼 창암 박로중은 처음 어머니에게 천자문을 익힌 후 부친 小近齋公의 문하에서 오랫동안 학문을 배웠다. 본격적으로 과거 공부를 하면서 盧勉國에게 수학하였고, 동문수학한 사람들과 ‘莘社稷’을 만들어 계속 교유하면서 학문의 길에 정진하였다. 57세의 늦은 나이에 艮齋 田愚의 문하에 들어가 그의 제자가 됨으로써 노론 낙학의 학맥을 계승하게 되었다.

2. 19~20세기 초반 淸州儒林의 동향

조선후기 성리학계의 동향에서 주목되는 점은 노론학계 내에서 학파의 분화가 이루어져 ‘人物性’ 문제를 둘러싸고 湖洛論爭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호락논쟁은 宋時烈의 제자 權尙夏와 金昌協의 문하에서 湖論의 韓元震·尹鳳九와 洛論의 李柬·李緯·金元行 등이 벌인 논쟁을 말한다.⁴⁸⁾ 즉 『中庸』의 첫 장인 “天이 命한 것을 性이라 한다”는 구절에 대한 註에서 程頤가 “性은 곧 理”라고 정의한 것을, 韓元震은 “性은 氣에 내재된 理”로 이해해야 의미가 보다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진 논쟁이다.

이러한 호락논쟁의 결과 宋時烈 → 權尙夏 → 韓元震으로 이어지는 湖論의 학맥은 19세기 이후 거의 소멸된 반면에, 洛論계열은 이후 정계와 학계를 주도해 나갔다. 즉 중화와 오랑캐, 성인과 범인, 충신과 역적, 유학과 불교 등을 엄격히 구분하는 학파가 힘을 잃었고, 낙론계열이 지닌 인식의 틀은 다양한 사상과 학술문화를 수용한 실학자나 개화사상가의 이론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사상적 엄격성과 개방성의 구도는 19세기 중엽 이후 斥邪와 開化라는 또 다른 대립 형태로 나타났다.

이처럼 19세기 사상계는 다양한 학설과 출처관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梅山 洪直弼(1776~1852)의 학문을 계승한 全齋 任憲晦(1811~1876) 학파는 主氣論의 학풍을 이은 이른바 기호지역의 정통 사립으로 洛學을 지지하였다. 이 학파는 李恒老 학파와 奇正鎭 학파와 같은 黨論을 가졌지만 學說이 달라 서로 배척하였다. 또한 국교확대 이후 出處觀의 차이로 서로 강하게 비판하였다.⁴⁹⁾

즉 이 학파는 특히 이항로 학파와 학설과 행동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임헌회는 明德을 心으로 파악하되 心은 氣에 속한다고 본 반면에, 이항로는 心을 理로 보았다. 즉 明德主理主氣 논쟁과 함께 척사의 방법에서도 상소를 통한 척사운동이나 의병전쟁을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自靖을 할 것인가 하는 차이를 보였다.

임헌회의 高弟인 艮齋 田愚(1841~1922)는 26세 때 스승이 사는 공주·전의·연기로 이거

48) 조성산, 1997, 「18세기 湖洛論爭과 老論思想界의 分化」 『한국사상사학』 8 ; 이경구, 1998, 「영조~순조연간 湖洛論爭의 전개」 『한국학보』 93 ; 권오영, 2003, 「호락논변의 쟁점과 그 성격」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49) 이병도, 1987, 『韓國儒學史』, 아세아문화사 ; 권오영, 2003, 「임헌회와 그 학맥의 사상과 활동」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하여 1876년까지 10년 동안 그의 곁에서 스승을 모시고 수학하였다. 그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임헌회의 뒤를 이어 사문의 宗匠이 되어 기호학과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그는 스승의 유훈을 받아 이항로의 제자인 柳重教·金平默 등의 主理論을 공격하였다. 척사론도 주리론자들과 그 노선을 달리하였다.⁵⁰⁾ 즉 전우는 이진상·이항로·기정진 등의 主理說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극력 배척하였고, 최익현·민영환·송병선 등의 擧義도 中庸의 道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김평묵 등은 당시 主氣論이 일세를 풍미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조선 후기 성리학의 다양한 학통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 조선 후기 성리학의 학통⁵¹⁾

50) 성대경, 1990, 「보수유생의 ‘自靖論’과 외세대응양식 - 良齋 田愚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5 ; 권정안, 1995, 「良齋의 經學思想 - 中庸記疑를 중심으로」 『良齋 田愚先生의 經學과 性理學에 대한 조명』, 간재사상연구회 ; 황의동, 1995, 「良齋 田愚의 四端七情論」 『같은 책』.

51) 이 표는 우인수의 글을 토대로 필자가 보충하여 새로이 작성한 것이다(우인수, 1999,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일조각, 184쪽).

구 분	호	이 름	비 고	호	이 름	비 고
姻戚之交	晚雲	權 用 五			徐 馨 輔	監 役
		宋 能 洙	都 正		沈 性 澤	主 簿
		權 用 瓚	進 士		李 喜 升	進 士
	景鳴	任 岐 模		彦鳴	任 徹 模	
	季通	鄭 海 寔		翠松	李 喜 東	
		李 喜 文	正 言	命五	李 喜 來	
	致五	卞 榮 箕			李 龍 稷	教 官
	鶴浦	李 喜 弼			李 喜 輔	都 事
舜瑞	申 鳳 善		聖韶	韓 致 成		
舊要之交	三吾	朴 大 遠		國彦	李 容 彬	
文會之交	道一	朴 海 準		廳潤	李 喜 年	
	蕙裳	具 熙		梧人	李 憲 鳳	
	雲樵	盧 勉 國		管山	李 源 華	
	九愚	趙 性 晋		琅山	李 喜 冕	
	錦石	李 喜 準		寧菴	李 桓 珪	
기 타		朴 定 鉉	承 宣		朴 文 鉉	吏 參
		朴 海 朝	同 敦		沈 宜 元	尙 書
	晤堂	李 象 秀		良齋	田 愚	
	重山	李 鎭 圭		復菴	申 春 朝	
	勇菴	金 思 禹		坦甫	金 永 胄	
	鳳汝	崔 鍾 和			洪 祐 明	都 正
	蓮坡	洪 祐 鼎			李 喜 軾	
	鄭 和 圭					

당시 박익동이 交遊한 인물들은 대부분 같은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던 인사 등 인근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짐작된다. 그의 부인인 全州李氏 가문의 인물이 가장 많았고, 다른 인물들은 선대 이래 혼인으로 맺어진 가문의 사람들이거나, 당시 청주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물들로 추정된다.

19세기 이후 청주지역 儒林의 계통은 대체로 老論의 학맥을 계승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당시 청주 유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노론의 학맥은 다시 크게 세 계통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湖論系의 영향을 받은 학맥은 志山 金福漢의 문인 申海澈과 壺山 朴文鎬의 문인인 金濟煥과 卞榮仁 등이 있었다. 洛論系의 영향을 받은 학맥은 田愚의 문인인 宋毅燮·吳震泳 등이 있었으며, 순천박씨의 경우와 같이 선대이래 湖論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후에 洛論의 학문을 이어받은 유림들도 있었다.

첫째, 老論의 洛學을 계승한 良齋 田愚(1841~1922) 계열을 살펴보자. 이 시기 청주의 유림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학맥을 형성한 것이 진우의 학맥이었다. 진우는 1876년 즈음에 청주 인근의 燕岐 竹岸에 살았는데, 이때부터 많은 청주의 유림들이 그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수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良齋集』의 觀善錄에 보이는 청주 문인의 대부분은 이때부터 그

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⁵⁴⁾ 그 이후 전우는 1912년부터 1922년까지 10여 년 동안 繼華島에 들어가 ‘自靖’하면서 道學을 이어갔다.

이들 청주 인근의 간재의 문인들 중에 주요한 인물을 도표로 작성하면 <표 5>와 같다.

<표 5> : 청주 지역의 良齋 田愚 문인

이름	생몰년도	본관	거주지	비고(문집)
朴魯重	1863~1945	순천	강서 신성리	『滄菴集』
宋毅燮	1865~1944	여산	강내 부탄리	『春溪集』
吳震泳	1868~1944	해주	음성 강리	『石農集』
金思禹	1857~1907	안동	오창 주성리	『勇菴集』
鄭光謨	1863~1946	동래	청주 휴암리	『圃山集』
金翊性	1863~1944	청풍	오창 복현리	
具鶴謨	1861~	능성	청주	

간재 전우의 문인으로 청주 인근에 거주하던 인물은 朴魯重을 비롯하여 宋毅燮·吳震泳·金思禹·鄭光謨·金翊性·具鶴謨·卞榮駿 등이었다. 간재 전우의 문집에 청주지역 출신 문인으로 등재된 사람은 모두 44명이다. 이들 중에서 박로중과 가장 절친한 사이로서 그의 가문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은 宋毅燮·吳震泳·金思禹·鄭光謨 등이다.

먼저 宋毅燮(1865~1944)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본관이 礪山이고, 字는 彊哉이며, 호는 春溪이다. 宋象賢의 후손으로 강내면 부탄리에서 宋秀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성격이 강직하고 재주가 비범하였으며, 성현의 가르침과 덕행을 익혀 부모님을 공양하였다고 한다.

그는 田愚의 문인이 되어 22~23세에 동문은 물론 유럽의 존경을 받는 학자가 되어, 그의 문하에는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그는 지산 김복한의 문인인 申海澈 大人의 61歲 서문을 쓰기도 하였고, 동문수학한 오진영·박로중·구학모 등과 교류하였으며⁵⁵⁾, 특히 박로중 선대의 문집 간행에 여러 차례 서문을 지었고, 『東國綱鑑』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吳震泳(1868~1944)은 본관이 海州이고, 字는 而見이며, 호는 石農이다. 조부는 漁隱 吳致性으로 族叔인 老洲 吳熙常(1763~1833)과 교류하였고, 부친은 至樂堂 吳箕善이다. 진천 栢谷 葛月에서 태어나 漢湖에서 살다가 16세 때 충주 蓬川으로 옮긴 후 만년에 음성 講里 望華齋⁵⁶⁾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처음부터 조부의 가르침을 받다가 18세 때에는 1년 동안 충주 白峙의 姜泰熙의 집에서 과

54) 田愚, 『良齋集』, 觀善錄 忠清道 清州.

55) 宋毅燮, 『春溪集』 권2, 書 및 권4, 序. 그는 慕溪 趙綱의 遺墟碑 陰記와 莘巷書院廟庭碑 閣重修記를 쓰기도 하였다.

56) 그가 54세에 세워 후학을 양성한 望華齋는 스승인 전우(繼華島)를 바라보고 배운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거 공부를 하기도 하였다. 이듬해 竹山 七丈寺에 머물고 있던 간재 전우를 처음 비알하고, 30세(1897) 때 정식으로 그의 문인이 되었다. 그는 위정척사사상에 철저하여 權憲奎·李仁·金澤榮 등이 공자와 유림을 비난하자 이들을 극력 비판하였고, 性師心弟說을 골자로 하는 性尊사상을 따랐다.⁵⁷⁾

그리고 金思禹(1857~1907)는 본관이 안동이고, 字는 仁父이며, 호는 勇菴이다. 청원 오창 주성리에서 金好璧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간재 전우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행이 뛰어난 인물로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는 박로중의 부친인 朴翼東과도 교유하였다.

鄭光謨(1863~1946)는 본관이 동래이고, 호는 圃山이다. 강서 휴암 출신으로 천품이 순후하고 총명하였고, 청주향교의 직원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경사에 통달하여 宋駿鏞·金永勳·李時雨·유인찬 등 30여 명의 제자를 양성하였다.

또한 金翊性(1863~1944)은 본관이 청풍이고, 字는 德哉이며, 호는 晚翠堂이다. 오창 복현리 출신으로 문장과 학문이 뛰어났다. 간재 전우의 문인으로 후학을 양성하였고, 諺簡牒을 보급하고 부녀자의 강학에도 힘썼다. 이 외에도 竹村의 金學曾, 蓮浦의 韓一鉉, 月灘의 申鉉徹, 진사를 지낸 미원면 基巖里的 金明洙, 蘆川의 閔致務, 그리고 茅山 松亭에 살았던 경주 김씨의 金東弼 등도 그의 문인이었다.

한편, 박로중은 다른 청주 유림과 달리 늦은 나이인 57세에 艮齋 田愚를 찾아 뵙고 그의 문인이 되었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에는 부친 小近齋 朴翼東에게 학문을 전수 받았다. 소근재공은 湖論 宋釋圭의 문인인 朴元東에게 학문을 배웠고, 동시에 낙학을 계승한 田愚 등과도 교유하였다. 이 때문에 立齋 宋近洙(1818~1902)가 朴敏俊의 묘갈명을 찬하기도 하였다.⁵⁸⁾

이때 왜 박로중이 전우의 문인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⁵⁹⁾ 부친이 이전에 전우와 교유 관계에 있었던 것도 작용했겠지만, 당시 호론·낙론으로 분화된 사상계가 19세기에 오면 호론의 맥이 거의 끊어진 상태에서 낙론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학파 사이에 크게 배척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박로중의 학문은 朴元東과 부친 朴翼東에 의해 湖論의 영향도 입었으나, 뚜렷한 학문적 견해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도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박로중은 전우의 문하에 들어가면서 그의 학통은 宋時烈·李端相 → 金昌協 → 李緯 → 金元行 → 朴胤源 → 洪直弼 → 任憲晦 → 田愚 → 朴魯重으로 이어지는 학맥과 또 鄭濬 → 金正默 → 宋釋圭 → 朴元東·朴翼東 → 朴魯重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동시에 이어

57) 최근덕, 2002 「石農 吳震泳의 義理와 學問」 『상산문화』 8.

58) 『順天朴氏下福台派世譜』 권上, 贈通訓大夫司憲府持平朴公諱敏俊墓碣銘并序.

59) 간재 전우의 문인 중에는 순천박씨 가문 인물이 2명 보인다. 즉 박로중과 가까운 松亭에 살던 참봉 朴계東과 朴濟東 형제가 그들이다. 먼저 전우의 문인이 된 이들 형제의 존재도 박로중의 거취에 다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받았다고 하겠다. 즉 박로중은 청주 유림 중에서 호론과 낙론의 학맥을 동시에 계승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박로중은 전우 문하의 동문들과 교류하면서 그의 가문에서 간행하는 문집의 글이나 선대의 행적에 관련된 글을 이들에게 부탁하였다.⁶⁰⁾ 즉 宋毅燮은 박로중의 6대조인 朴敏雄의 문집인 『湖西散人實紀』의 서문을 썼다. 또 吳震泳은 박로중의 부친 朴익동의 墓碣銘을 찬하였고, 宋毅燮이 『小近齋集』의 서문을 쓰는 등 서로 막역한 사이였다.

이들 전우의 문인들은 서로 비슷한 나이였고, 간재의 문인이 된 이후 청주지역 유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해방을 전후하여 1~2년 사이에 모두 세상을 떠날 정도로 ‘특별한 우의’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둘째, 志山 金福漢(1860~1924)의 계열을 들 수 있다. 김복한은 홍주 출신으로 金尙容의 12대손이다. 李敦弼(1834~1902)과 復菴 李倝에게 학문을 배웠고, 南塘 韓元震(1682~1751)을 사숙하였다. 그의 스승 이돈필은 부친 李達緒와 증조부 李建運, 그리고 증조부의 스승인 鄭赫臣(1719~1793) 등을 통해 그 학문의 연원이 韓元震에게까지 올라가고 있다. 즉 그의 학문은 韓元震의 학풍을 전수받아 湖論의 宗匠이란 칭호를 얻기까지 하였다.⁶¹⁾

그의 문인으로는 그의 아들인 殷東·魯東·明東을 비롯하여 지산집 출간에 노역을 자임하였던 田容학과 申海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덕산의 李喆承, 공주의 金澤, 金佐鎭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청주지역 인물은 申海澈(1900~1941)이 대표적이다. 그의 본관은 平山이고, 字는 汝宗이고 호는 友石이다. 고조부는 申光周, 증조부는 申義萬, 조부는 申盛均으로 동지중추부사이다. 그는 광무 4년(1900) 참봉인 부친 申鉉基와 강릉유씨 사이에서 청주 西村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少雲 韓星履와 松溪 朴魯雲을 글방에 모시고 그에게 학문을 배우게 하였다.

신해철은 관례 후 부친의 명으로 志山 金福漢의 문하에 나아가 執贄하고 본격적으로 학문을 수학하였다.⁶²⁾ 그는 당시 박로중 등 학맥이 다른 이 일대의 유림들과도 교류하였고⁶³⁾, 지산이 죽은 후에도 湖論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스승의 년보와 문고를 정리하고 스승의 자제인 魯東과 함께 遺稿를 손수 등사하여 간행하였다. 평생 의발을 보전하고 지조를 지킨 선비였다. 부인은 김해김씨로 議官 金濟根의 따님으로 3남을 두었으니, 東奭(一東)·東奎·東協이다.⁶⁴⁾

60) 박로중의 문집에는 이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주고 받은 편지글이 많이 실려 있다(朴魯重, 『滄菴集』 권3, 書 師友同門).

61) 김상기, 1995, 「金福漢의 學統과 思想」 『한국사연구』 88.

62) 申海澈, 『友石稿』 권2, 附錄 墓表.

63) 申海澈은 獨山에 살고 있던 朴魯重 등과 교류하면서 함께 시를 짓고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고(申海澈, 『友石稿』 권1, 詩 獨山小集 ; 朴魯重, 『滄菴集』 권1, 詩 獨山池上小會·晚赴獨山詩會), 이들과 서신을 왕래하기도 하였다(朴魯重, 『滄菴集』 권4, 書 答申汝宗海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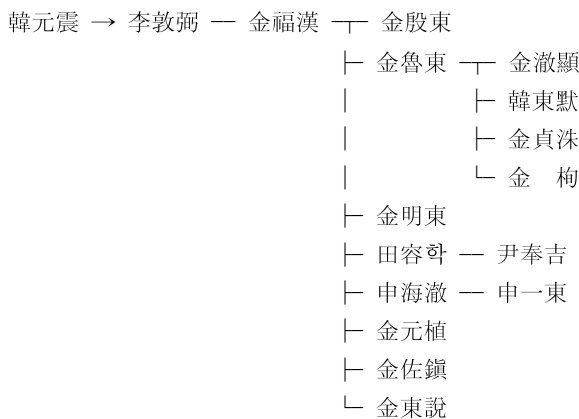
64) 申海澈, 『友石稿』 권2, 附錄 家狀·墓表 및 墓碣銘. 그의 家狀은 동생 周澈이 썼고, 묘표는 간재 전우의 문인인 宋毅燮이 지었으며, 묘갈명은 지산 김복한의 차남 金魯東이 찬하였

그는 湖論의 성리설을 견지하면서 洛論의 설을 비판하였다. 田愚가 吳熙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비판하였고, 華西 李恒老와 省齋 柳重教가 理로써 明德을 본 것을 이는 經旨에 위배된다고 하였고, 中庸의 주자 註에 나타난 낙론계의 주장을 배격할 이론적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⁶⁵⁾

이 외에도 청주에서 지산 김복한에게 학문을 배운 사람은 金東說·金元植 등이 있다. 김동설은 모두 청주 외북동 松谷 출신으로 경주 김씨인데, 송곡은 박로중의 선대가 처음 청주에 입향한 마을이기도 하다. 김원식은 오창 백현리 출신으로 김해 김씨이다.

당시 김복한의 학맥을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 志山 金福漢의 학맥



세재, 壺山 朴文鎬(1846~1918)의 계열이다. 박문호는 회인 訥谷에서 태어나 어릴 때에는 부친 朴基成에게 한학을 배웠다. 19세에는 晚悟 尹永郁에게 科業을 배웠고, 20세(1865)에 회인 秋谷에 살던 晤堂 李象秀(1820~1882)의 문인이 되었다.⁶⁶⁾

그의 학맥은 宋時烈 → 權尙夏 → 韓元震 → 李象秀로 이어지며, 남당 한원진의 湖學을 계승하였다. 그의 스승 이상수는 회인에서 태어났으나 1871년에 청주 강의 蓮堤里에 이거하여 살았고, 전우의 스승인 임헌회는 물론 박로중의 부친 박익동과도 교류하였다.

박문호는 40세에 田愚의 來訪을 받아 人物性에 대해 토론하였고, 44세에 訥谷에 楓林精舍를 세워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으며, 이듬해에는 宋秉璿(1836~1905)과 강학하였다. 49세 때에는 청주 牧隱講堂에서 강학하였고, 53세에 朱子の 글 중에서 인물성에 대한 글을 모아 考亭人物性考를 지어 人物性相異論을 주장하였다.⁶⁷⁾

다. 그의 장인은 前청주시장 김현수의 조부 金濟根이다. 그의 장남 申一東은 현재 청주에서 중앙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다.

65) 김상기, 1995, 앞의 논문, 102~103쪽.

66) 지교현, 1982, 「壺山 朴文鎬의 생애와 사상 1」 『호서문화연구』 2,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67) 이상은, 1955, 「朴文鎬의 人物性考」 『高麗大 文理大 文理論文集』 1.

<표 8> : 滄菴 朴魯重의 문인



IV. 맺 음 말

滄菴 朴魯重(1863~1945)은 청주 출신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청주를 대표하는 儒林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가문은 박로중의 13대조인 朴宜倫대에 청주에 입향하여 점차 성장하였는데, 국가적 전란 때마다 청주지역에서 일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의 선대 朴仲林 · 朴彭年는 단종복위운동을 주도하였고, 朴春茂 · 朴春蕃은 임란 때 趙憲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였으며, 그의 6대조인 朴敏雄은 영조대 ‘戊申亂’에 倡義하여 반대 세력을 진압함으로써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박로중은 어릴 때부터 부친 朴翼東에게 학문을 수학하여 湖論的인 家學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30세부터 향시에 응시하여 입격하기도 하였으나 갑오개혁의 실시로 관리의 길이 중단되고 말았다. 40세에는 그의 학문이 청주지역 사회 유림들에게 인정받아 莘菴書院의 有司를 맡기도 하였고, 그 후 文義鄉校의 任司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의 향촌 사회에서 활동 중에서 후학 양성 외에 주목되는 것은 문중의 여러 일들을 도맡아 주관한 것이다. 그는 학문적 깊이가 더해가면서 문중의 宗事를 직접 관장하여 선대의 문집인 『湖西散人實紀』와 『小近齋集』 등을 간행하고 직접 서문 · 발문 등을 지었고, 선대의 역사를 정리하여 선조 40여 명의 행장 · 묘갈 등을 찬하였으며, 宗契를 설치하여 문중을 단결시키고 화목을 돈독하게 하였다.

박로중이 학문을 수학 과정에는 湖論의 영향을 받은 부친 朴翼東의 영향이 가장 컸고, 본격적으로 과거 공부를 하면서 盧勉國에게 배웠다. 그는 57세의 늦은 나이에 良齋 田愚의 문하에 들어가 그의 제자가 되어 洛論 학맥을 계승하게 되었다. 즉 宋時烈 · 李端相 → 金昌協 → 李 緯 → 金元行 → 朴胤源 → 洪直弼 → 任憲晦 → 田愚로 이어지는 洛學과 鄭澮 → 金正默 → 宋釋圭 → 朴元東 · 朴翼東으로 이어지는 湖學을 동시에 이어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

19세기 이후 淸州儒林의 노론 학맥은 크게 세가지 계통이었다. 이는 다시 세 계통으로 나

뒤어져 湖論系의 영향을 받은 학맥은 志山 金福漢의 문인인 申海澈·金東說 등과 壺山 朴文鎬의 문인인 金濟煥·卞榮仁 등이 있었다. 이 지역 유림의 학맥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艮齋 田愚의 학맥이었다. 박로중을 비롯하여 宋毅燮·吳震泳·金思禹·具鶴謨 등이 있었다.

또한 박로중의 문인은 象圭 등 3형제와 崔敬洛·朴時陽·朴鍾九·朴鍾述 등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의 가문은 19세기 이후 청주지역을 대표하는 儒林 중의 하나로 부친 小近齋 朴翼東, 滄菴 朴魯重, 그리고 아들 誠堂 朴象圭 3대로 이어지는 유림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청주지역 儒林 사회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